



한국게임산업진흥원
Korea Game Industry Agency

kotri

동남아 게임시장 동향 정기보고서

[인도네시아]

[주요 내용]

- Ponsel Planet, ESWC 후원 등의 적극적 마케팅
- 워크샵서 새로운 영상물 선보인 인텔

19호 - 2007. 9월

ESWC 2007에 출품된 모바일게임 Mobile Game on

2007년 전자스포츠월드컵(Electronic Sports World Cup 2007)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모바일 게임 국가대표 선발 전에 대한 이야기가 꽃을 피우고 있다.

비록 핸드폰 게임이기는 해도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다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본선에 인도네시아를 대표해 나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ESWC 2007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후원해온 콘텐츠 공급업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ELASITAS에 소속된 Ponsel Planet은 콘텐츠 공급업체로서 항상 이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해 왔다.

그들은 많은 모바일 및 온라인 게임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일을 계속해 왔으며, 휴대폰용 새로운 게임들을 시장에 많이 소개해 오기도 했다.

Ponsel Planet은 시장에 출시될 게임들에 대해 항상 정보를 공급해 왔고, '캐리비안의 해적', '톰과 제리', '다이하드', '패리스힐튼', 'FIFA 2007', '해리포터 게임' 등 유명한 게임 브랜드들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해 왔다.

Ponsel Planet은 국제적인 퍼블리셔들로부터 다량의 기념품을 끌어와 배포하기도 했는데, '캐리비안의 해적' 모바일게임의 홍보 티셔츠나 모자, 어젠더북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Ponsel Planet은 모바일게이머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항상 디즈니(Disney)와 Gameloft 등에서 게임을 들여오고 있고, 많은 모바일 게이머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포츠 및 익스트림 게임 제작 업체인 EA 모바일 게임을 거의 다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ESWC 예선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모바일 게이머들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받고 있는 Ponsel Planet은 향후 인도네시아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Ponsel Planet의 마케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와 네트워크는 우리 한국업체들이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요자들인 게이머들의 여론과 성향을 주도해 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자료원 : GAMESTATION (2007년 9월호)

인텔이 선보인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8월 24일에 인텔이 인도네시아 게이머들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워크샵은 게임환경에 캐릭터를 접목시키려는 국내 영상물 제작자들을 위한 행사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런 영상물은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자들이나 할 수 있던 작업이지만, 인텔에서 개발한 기기를 사용하면 일반인들도 집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워크샵은 인텔인도네시아 지사장인 Mr. Budi Wahyu Jati가 참석해 "Machinima"라는 제품을 소개하였다고 함.

자신만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값비싼 3D 기술을 이용해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대신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손쉽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한다.

시범 사례로 도입된 "Granado Espada" 는 Ragnarok Online 제작사에서 제작한 새로운 온라인 게임이다.

이번 행사에서 아일랜드에서 온 Machinimasia 교육담당이자 프로듀서인 Mr. Cillian Lyons이 Fraps과 Window Movie Maker 프로그램을 활용해 Granado Espada의 몇몇 장면을 모방해 새로운 영상으로 조합해 가는 과정을 선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게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연계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게임 캐릭터의 홍보와 영상의 연계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다.

자료원 : jagogame.com 기사